



1 페로니즘은 1940년대 초반 페론당 대표이자 아르헨티나 대통령직을 세 번 수행한 후안 도밍고 페론을 중심으로 발전한 정치운동으로, 처음부터 노동 권리와 사회 정의, 그리고 경제적 평등을 위해 싸웠다.

2 '실종자'는 독재정권에 의해 불법 체포되어 비밀 감금 시설에서 고문 및 살해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그중 다수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3 오늘날 5월 광장의 어머니회는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이자 정치단체이다.

아시아와 중남미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대내외적인 위협에 맞서 싸워온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직도 잔존하는 이 위협들은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로 하여금 서로의 상처에 얽힌 사연과 경험, 저항의 방법, 그리고 여러 형태의 기억을 공유하게 한다. 많은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 마지막 독재정권이 들어선 것은 1970, 80년대였다. 이른바 '국가 재편 과정'은 1976년 3월 24일의 군사 쿠데타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페론¹의 민주정부가 실각되고 계엄령이 발동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주도의 테러 행위가 자행되었다. 그 결과 3만 명의 실종자²가 발생했다. 미국 국가 안보 정책의 지지에 힘입어 7년 이상 지속된 아르헨티나의 독재정권 시대는 1983년 민주주의의 복귀와 함께 막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 작가 J. G. 발라드의 「근미래 신화」라는 단편소설이 출간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냉전의 잔재이자 60, 70년대 미국 국가 안보의 상징 중 하나였던 미국 우주 프로그램이 실패로 끝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열린다. 바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얽히며 융합되는 가상의 시간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하지만 허구가 늘 상상의 유토피아적 또는 디스토피아적 산물은 아니다. 때로는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없거나 보면 안 되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발라드가 그랬듯이, 많은 비서구 문화권에서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가 일련의 고리나 나선 모양으로 공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화권에서 신화는 허구적 기원과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내포한다. 허구에 의존해 기억을 지키고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새로운 정치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의 제약을 없애고, 현재를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상상하게 해준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은 이렇게 시간을 재창조한다. 이번 전시 또한 위대한 두 국가의 시민들을 움직여 역사와 시간을 바꾼 두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1977년 4월 30일 가을비 내리던 어느 날, '5월 광장의 어머니들'³이라고 알려질 일단의 여성들이 실종된 자녀들의 생환을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궁 앞에 모였다. 대통령궁 앞 공원에서 계엄령을 집행 중이던 경찰들은 이들의 집합을 막기 위해 계속 "빙빙 돌며" 걸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머니들이 자유와 독립의 상징물인 5월의 탑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40년도 더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머니들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은 아르헨티나 정치의 심장부에 모여 시간의 흐름에도 흔들림 없이 새로운 행진을 시작한다. 이들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의 중심점이 되어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는 두 시대 사이의 대화를 연 것이다.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 목욕 행진을 시작하고 몇 년 뒤 지구 반대편에서도, 점차 확대되는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있었다. 열흘 간의 기나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학생, 시민 운동가, 노동자, 시민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남도청 분수대 주변에 모여 계엄령을 반대하고 압박해오는 군의 포위에 저항했다. 서로 어깨를 맞댄 시민들은 거대한 동심원 모양의 무리를 이루어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하면서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분수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광주 시민들은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고, 1987년 마침내 26년간 이어진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파동이란 공간의 속성이 교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물질의 움직임 없이 에너지를 끌어 모으는 것이다. 가장 멀리서 이는 가장 크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물결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므로 끝없이 퍼져나가는 원형의 투영처럼 느껴질 수 있다.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반복되며 진행 중인 이 저항의 이야기는 기원 신화의 모태가 될 두 시간의 만남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미래의 신화»는 한국 작가들과 아르헨티나 작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시회이다. 이들의 작품은 순환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 허구와 시를 이용해 자국의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그 역사의 표면을 탐구하고 그 질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추구하는 이 작품들은 저항운동,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반복적인 신자유주의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서사를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한자리에 모인 작가들은 1960년대 후반의 군 소재 영화들, 한국의 오래된 민중가요들, 잊혀진 공예 기법들, 방치되었던 자료들, 무속 의식 등 비극과 폭력을 목격한 사람과 사물을 적극적으로면서 시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다.

과거가 어떠한 미래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⁴

구현(추상적 특질의 유형화)이란 아픔을 이겨냄으로써 과거를 지켜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으로 생각될 수 있다. 역사의 순간들을 살아왔기에 실질적으로 그 경험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5월 광장의 어머니들과 광주의 어머니들이 바로 그렇다. «미래의 신화»전은 형태는 없지만 매우 강력한 행위, 바로 역사를 구현하는 행위에서 출발한다. 역사를 목격한 나무의 복제를 통해, 그리고 동시대인들이 집단 에너지로부터 저항의 흔적과 공통의 아픔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는 한 박물관 안내원의 의도치 않았지만 시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다. 이 안내원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구 아르헨티나 해군사관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보카도 나무들을 번식시켜왔다. 지금은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 과거 불법 감금 및 고문과 학살의 현장이었다.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나 매일매일 자국의 끔찍했던 과거를 구현해내는 그녀처럼, 다른 여러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이 새 나무들도 국가 테러의 기억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홍영인 작가의 퍼포먼스 작품 <5100 : 오각형>에서는 세계 각지의 참여자들이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이미지와 유사한 동작들을 안무화하여 1980년대 광주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구현했다. 역사가 함축된 이러한 동작들은 추모의 행위인 동시에, 지배적인 사회 규범에 대한 모종의 저항이기도 하다. 비야르 로하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박물관 안내원 및 나무들이나, 홍영인의 퍼포먼스 및 그의 자수 작품 <이중의 만남>은 현재의 우리를 보다 복합적인 시간의 차원 속으로 데려다준다. 이로써 우리의 몸은 역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주체가 된다.

전시회에서 사상이 전달되는 다음 단계는 두 가지 형태의 교육을

⁴ 티모시 모턴이 인용한 밥 딜런의 명언.

통해 나타난다. 소통 행위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와 과거의 투쟁에 대한 지식 공유이다. 정보가 범람하는 오늘날, 우리는 과거 사건의 옳고 그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의 교육적 잠재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임흥순의 영상 작품 <좋은 빛 좋은 공기>는 5·18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어머니들과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비극의 기억을 생생하게 지키고 있는 이 두 어머니 단체들은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 아직 많다. 이 역사적 내용의 다큐멘터리 작품과 더불어, 임흥순 작가는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청년들이 참여한 일련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영상, 퍼포먼스, 텍스트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자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으며, 녹록지 않은 개개인의 현실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해석했다. 작가는 다양한 장치를 활용해 서로 다른 세대와 장소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다른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아구스티나 트리켈의 작품은 정보 전달을 위해 이전 세대가 채택했던 문화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트리켈은 ‘해방영화집단’이 자신들의 고전 다큐멘터리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1968)를 상영하기 위해 동원했던 모바일 스크리닝 장치와 대학, 노조, 공장 등의 대체 공간들을 부활시킨다. 하지만 그는 5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사회 불평등, 식민지화, 그리고 혁명에 대한 담론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의 젊은 관객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준다. 루크레시아 리온티의 <피부로 만든 학교>는 교육을 기억과 표현의 주제로 삼는다. 그의 이야기는 자신의 고향인 투쿠만 주에 위치한 파마이야 학교에서 출발한다. 이곳은 1975년 한 유치원 건물에 세워진 아르헨티나 최초의 감금 및 고문 시설이다. 작가는 학교의 낡은 칠판 이미지를 눈이 가리워진 생존자들이 머리를 부딪히며 고문을 받았던 물증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해, 다음 단계에서는 빈 검정색 표면을 시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들로 채워나가며 단단한 칠판을 따스해 보이게 만든다.

기록 자료와 기억에 기반을 둔 마지막 세 개의 프로젝트는 예술을 통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로써 민주주의에 새로운 비전과 생활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탐험한다. 발라드의 소설처럼, 때로 허구는 비현실적인 신화든 공상과학적 디스토피아든 은밀하지만 매우 집요하게 민주주의의 지속을 저해하는 이념의 잔재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윤 작가와 작곡가 이민휘는 대량 소비되는 이미지들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 <오염된 허>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전파 방식을 표현했다.

초현실적인 풍경과 한쪽 눈이 두 개인 여성들부터 미래지향적이고 허무맹랑한 세계관까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뒤틀린 현실의 이미지들은 그러한 이념이 만들어낸 폭력의 현대적 해석이자 그로 인해 발생한 역사 왜곡의 표현이다. 작가 그룹 파트타임 스위트는 서울의 지하도를 헤매며 무속 의식을 행하고 할로윈 밤에 이태원을 돌아다니는 한 가상의 아이의 시선으로 민중미술 자료들을 들여다본다. 영상 작품 <사람들, 다음 사람들>은 민중미술에 등장하는 개인들에 착안해, 반체제 인물들을 제거하던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을 다룬다. 이 영상은 개인의 자기 노출 이미지를 민주화 운동과 대척점에 있던 바로 그 이념에서 비롯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끝난다. 에두아르도 몰리나리는 아르헨티나의 역사 기록을 탐구, 국가 폭력과 현대 갈등의 식민지적 뿌리를 풀어본다. 작가는 콜라주와 드로잉, 다소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공화당의 기원 신화, 독재정권, 제도적 폭력, 자유주의 경제정책, 인종차별, 환경파괴, 그리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탐구한다. 이 기록관 자료들은 현실을 새롭게 상상해봄으로써, 『역경』(易經)이 그러하듯, 과거에 멈춘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또 다른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들의 특별한 만남은 서로 먼 두 나라 간에 공통어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다. «미래의 신화»전에 참여 작가들은 허구를 통해 기존의 이념과 그 서사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허구의 세계에서 정보는 신화가 될 수 있고 신화는 대중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들이 던지는 화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이 어떠한 미래로 이어질까 하는 것이다.

1
 “Peronismo” is a political movement that grew in the early 1940s around the figure of Juan Domingo Perón, the leader of the Peronista Party and three times president of Argentina. Since its beginning, it has championed labor rights, social justice, and economic equality

2
 The term “desaparecido” describes those people who were illegally detained by the dictatorship and kept in clandestine detention, torture, and extermination centers. Many of them were killed and their bodies were never found

3
 Mothers of Plaza de Mayo is now a Human Rights NGO and a political organization that works to protect human rights across all human activities

Asia and Latin America have a common history of struggles defending democracy against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Threats that still linger today and that move us to gather to share our stories, experiences of trauma, strategies for resistance, and multiple forms of memory. As many other neighboring countries, Argentina experienced its most recent dictatorial regime during the 1970s and 1980s. The so-called 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 (Process of National Reorganization) began with a military coup on March 24, 1976, which deposed the Peronist¹ democratic government, implemented martial law, and deployed the most violent systematic plan of state terrorism our country ever lived—leaving a void of 30,000 disappeared citizens.² Backed by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doctrine, the dictatorship lasted more than seven years, ending in 1983 with the return to democracy.

Around the same time, J. G. Ballard wrote the short story “Myths of the Near Future.” In it the American Space Program—a residue of the Cold War and yet another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emblem of the 1960s and 1970s—finally fails and in doing so, it accidentally opens up a new time: one where past, present and future engulf one another and fuse into a supposedly fictional time. Yet fiction is not always a utopic or dystopic product of the imagination, sometimes it is simply the unveiling of something we can’t, or are not allowed to, see. In the non-Western world, many cultures do conceive of time just like Ballard did: as a spiral or succession of interrelated loops which also contain past, present and future all together. In these cultures, a myth includes both the fictional origin and the prophecies of events to come. Using fiction to preserve memory and envision a future can sometimes invoke a new political sensitivity, decolonize time, and imagine new ways of inhabiting the present. Certain events in history do just that: they reinvent time. This exhibition is about two such episodes that provoked two colossal human circles and transformed history and time.

On April 30, 1977, under the Fall rain, a group of women, who would soon be known as the Madres de Plaza de Mayo (Mothers of Plaza de Mayo),³ arrived at the gates of the presidential palace to claim the return of their disappeared sons and daughters. The police officers guarding the park that faces that palace, enforced the state of siege and demanded the women to “circulate,” to keep walking. So they walked in circles around the Pirámide de Mayo (May Pyramid), a republican foundational monument that symbolizes freedom

and independence. More than forty years have gone by and yet they have never stopped: they have held their position in order to move forward. Every Thursday at 3:30 p.m., the Madres de Plaza de Mayo walk together, restating this continuously eroding circle at the country's political core. They have created a centripetal energy that radiates through the entire region. A conversation between times that holds history and future together at once.

A few years after the Madres began their Thursdays' walks,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another expansive circle changed history in South Korea. For ten long days during the May 18 uprising, students, activists, workers, citizens, men, women, and children gathered around the Provincial Hall fountain to oppose martial law and resist the advance of the military siege. Sitting one next to the other, they formed massive assemblies in the shape of concentric circles, expanding through the city, dispersing and reassembling over and over again. Like a pebble thrown into a fountain, the citizens of Gwangju managed to create an expansive wave that finally, in 1987, deposed the military government after a twenty-six-year long dictatorship. A wave consists of the propagation of a disturbance in a property of space, which implies mobilizing energy without the movement of matter. The furthest ripple—the biggest one and the first one to appear—is constantly moving forward; thus time can be understood as a never-ending circular projection. These circular stories of resistance in motion, both in Argentina and South Korea, can be read as conclaves of time, from which myths of origin may arise.

Myths of the Near Future brings together projects by Argentinian and Korean artists, whose works dive into the loops of time, using fiction and poetry to revisit its histories, examine its surfaces, and feel its textures. These are projects that build on the foundational narratives of resistance movements, the recovery of democracy, and the repetitive neoliberal tales, in order to envision new political imaginaries. The artists gathered here actively and poetically revisit militant films from the late 1960s, old Korean protest songs, degraded artisanal techniques, neglected archives, and shamanic rituals; they collaborate with others, human and non-human witnesses of tragedy and violence.

You Never Know How the Past Will Turn Out⁴

Embodiment could be thought of as a ground zero experience that protects the past while moving toward a future: like the bodies that lived through these histories—the Mothers of Plaza

4
Bob Dylan via Timothy
Morton

de Mayo and the May Mothers of Gwangju—and can physically transmit them to new bodies. *Myths of the Near Future* begins with the intangible but powerful act of embodying history; of finding tales of resistance and shared trauma in the clone of a witness tree or in the energy of a contemporary collective body. Adrián Villar Rojas' project builds a new mythology around the poetical and unintended act of a person who works as a mediator in Museo Sitio de la Memoria (Memory Site Museum). Together with her mother, she has been cloning the avocado trees surrounding the clandestine detention, torture, and extermination center at the ex-ESMA (Navy School of Mechanics) complex in Buenos Aires, now a site of memory. Much like the body of the mediator who was born in democracy and every day incarnates the past horror of her own country, the new trees that now grow in different sites hold and expand the memory of state terrorism. In Young In Hong's performance *5001:pentagon*, contemporary citizens of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have embodied different physical manifestations of 1980's Gwangju citizens through a choreography of movements based on images found in the May 18 Democratic Archive. It is a way of commemorating and, at the same time, using historically charged gestures to keep acting out a certain resistance toward prevailing social norms. The mediator and the trees in Villar Rojas' project, Hong's performance, and her embroidery piece *Double Encounter* place the contemporary body in a more complex dimension of time. The body is a host that history uses to keep itself alive.

Education—as embodiment—also facilitates the transmission of an ideology. The following section in the exhibition centers on projects that focus on the act of communicating, of sharing knowledge about the struggles of the past. In a time when we seem to have a global encyclopedia at our reach that makes it more possible but considerably more confusing to learn about what went right and wrong in prior generations, many artists reflect on art's pedagogical potential. IM Heung-soon's film *Good Light, Good Air* gives voice to the mothers of the victims of May 18 in Gwangju and the mothers of Plaza de Mayo. Their two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keeping the memory of these tragic events alive and have yet a lot to teach us. In parallel to this historical weaving, IM carried out a series of workshops that connected young students that live both in Gwangju and Buenos Aires. The participants got to know each other's histories and reflect upon their own, using film, performance, and text as tools to reinterpret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own

present struggles. Using different devices, IM connected different generations and places, so that learning was not only achieved through the experience of time, but of other territories as well. Agustina Triquell's project focuses on previous cultural strategies for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She reactivates the mobile screening device and alternative circuit—universities, unions, and factories—that the collective Grupo Cine Liberación (Liberation Cinema Group) deployed for their classic militant film *La hora de los hornos* (*The Hour of the Furnaces*; 1968). But she does so by staging a fifty-year-long ellipsis: she moves around screening the same film to an audience of young students that face a discussion on social injustice, colonization, and revolution that still echoes in our present day. Lucrecia Lionti's *School Skin* pushes education to become a site of memory and representation. She departs from the story of the Escuelita de Famaillá (Famaillá School) in her home province of Tucumán, the first detention and torture center of the country, created in 1975 in a kindergarten. She explores the image of the school's old blackboards, first as material evidence of torture as the blindfolded survivors remember bumping their heads with them, to then respond by filling the black empty surfaces with poetical and emotional—both personal and social—images, and softening its hard materiality.

The last three projects delve into archives and memories, inquiring whether art can be an exercise of political imagination that in turn results in new visions and rituals for democratic living. As in Ballard's story, sometimes fiction—whether in the form of otherworldly myths or sci-fi dystopias—is the only way to break through the obscured yet very resilient residues of those ideologies that plotted against the sustainability of democracy. The work *Viral Lingua*, by artist Yun Choi and composer Minwhae Lee, disguises itself using the mass consumption images of viral videos and pop karaoke aesthetics to emulate the virus-like dissemination of lingering Cold War ideolog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The altered images of reality presented by the video—ranging from surreal landscapes and double-eyed women to futuristic and wild visions of the world—act both as a contemporary embodiment of the violence at play in this kind of ideology, as well as a representation of the distortion of historical narratives created by them. Through the gaze of a fictional child that wanders the underground paths of Seoul, performs shamanic rituals, and walks around Itaewon on a Halloween night, the collective Part-Time Suite delves into the Minjung art archives. The film *People, the Next People* traces a thread that begins with

the persistent representation of the individual in the imagery of Minjung art as a means of resistance against the state terrorism that meant to efface those opposing the dictatorial regime. The thread ends in the exploitation of the image of the self-exposed individual as a means of control, which stems from the very same ideology that oppose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Eduardo Molinari's approach to archives of Argentinian history seeks to untangle the colonial roots of state terrorism and contemporary struggles. Through the use of collage and drawing, and the creation of a somewhat surreal universe of images, he traces the concealed links between republican myths of origin, dictatorial regimes, institutional violence, liberal economic policy, racism, ecocide, and structural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By reimagining the present, the archive—in the likeness of I-ching—turns to predicting other possible futures, rather than recording static versions of the past.

These unlikely encounters seek to foster the invention of a common language between two distant countries. *Myths of the Near Future* features artists that believe in the power of fiction to uphold or revise an inherited ideology and its tales. In the territory of fiction, information can become myth and myths can shift into efficient tools to uphold ideologies in the public realm. Ultimately, the question these works ask is not so much what happened in the past, but how it will turn out.